

# 파자(破字) · 참설(讖說)의 언어문화 교육적 의미와 활용 방안

조 성 윤(동국대 국어교육과 강사)

## 〈 목 차 〉

1. 서론
2. 파자 · 참설의 언어문화 교육적 의미
  - 2.1. 우리 고유의 언어문화에 대한 인지적 능력 향상
  - 2.2. 언어문화 생활에서의 정의적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
3. 파자 · 참설의 언어문화 교육에서의 활용 방안
  - 3.1. 전통과 현재 언어문화의 소통적 교육
  - 3.2. 전통 언어문화의 통합 · 융합적 교육
4. 결론

## 국문초록

이 연구는 우리 고유의 언어문화라 할 수 있는 파자(破字) · 참설(讖說)의 언어문화 교육적 의미를 살피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 국어 교육 방안을 제시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파자와 참설은 크게 2가지의 언어문화 교육적 의미가 있다. 첫째, 우리 고유의 언어문화에 대한 인지적 능력을 향상시킨다. 언어 자체에 대한 관찰력을 증진시킬 수 있고, 지금의 언어생활에도 적용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학습자의 창의적인 능력을 기를 수 있게 한다. 둘째, 언어문화 생활에서의 정의적 능력에 긍정적 영향력을 행사한다. 파자와 참설이라는 말의 힘은 삶에 긍정적인 효과와 자기 이해 능력을 증진시킨다. 또한 말에 대한 경계와 신중한

처신 등의 문제해결능력을 배우고 향상시킬 수 있다. 그리고 학습자의 사고력 향상과 집중력 및 끈기에 도움이 된다.

과자와 참설은 국어 교육에서 2가지 측면에서 활용될 수 있다. 첫째, 전통과 현재 언어문화의 소통적 교육을 할 수 있다. 고등학교 국어의 언어 기능 측면에서 말하기·듣기, 읽기, 쓰기로 교육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 전통 언어문화의 통합·융합적 교육을 할 수 있다. 고등학교 선택 과목의 문학 과목에서 공식적으로 인접 분야와 통합해 보면서 융합적·역동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 과자(破字), 참설(讖說), 언어문화, 언어문화 교육, 소통, 통합, 융합

## 1. 서론

이 연구는 우리 고유의 언어문화라 할 수 있는 과자(破字)·참설(讖說)의 언어문화 교육적 의미를 살피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 국어 교육 방안을 제시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언어문화란 언어와 관련된 모든 문화를 통틀어 이르는 말로, 국어 교육에서는 인간의 과거와 현재의 일상 언어생활과 언어 맥락을 통해 공동체 사회 속 인간의 사고와 인식을 알 수 있는 양상으로 합의하여 사용한다. 이러한 언어문화는 민족별, 나라별, 지역별, 세대별 등 구성원에 따라 다양한 특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특히 구성원 별로 서로 다른 언어문화적 특성을 알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전통 시대의 언어문화가 사장(死藏)되지 않도록 그 시대의 언어문화를 잘 보존하여 앞으로의 시대에까지 어떻게 유지시킬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sup>1)</sup>

이와 관련하여 국어 교육에서는 초등 시기부터 언어문화 교육을 꾸준히 하고 있는 모습이다.<sup>2)</sup> 특히 언어문화 교육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분야는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으로, 김대행(2012), 김연희(2018), 김은희 외(2013), 성기철(2008), 오지혜(2007), 윤여탁(2015), 이미향(2012)의 연구들이 있어 왔다. 국어 교육 전반에서 언어문화 교육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심을 가지고 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꾸준히 논의할 필요가 있는데, 특히 전통의 언어문화의 경우 그것이 현재의 언어문화와 많은 관련성이 있고, 우리의 의식과 언행의 기반이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옛 것으로 치부해 버리는 경향이 짙어, 더욱 그것의 교육에 심혈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빠르게 변화가는 현재의 다양한 언어문화, 예를 들면 신조어나 계층별 은어, 인터넷 어휘 등을 탐색하는 것도 좋겠고, 문법적 측면에서 한국의 언어문화만의 특성을 고찰해 보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특히 주목해 볼 지점은 ‘우리 민족의 오랜 전통적 언어문화’를 알고, 이것이 현재와 어떤 관련을 맺으며, 궁극적으로 앞으로의 시대에 어떠한 언어문화를 생성·발전

- 
- 1) 한국의 언어문화의 예를 들면, 고유명사, 조사, 어미, 호칭어, 지칭어, 높임 표현, 신조어, 의성어와 의태어, 계층별 은어, 인터넷 어휘 등의 단어 단위도 있고, 속담, 수수께끼, 관용어, 상투적 표현, 지역별 사투리 등의 문장 단위도 있다. 언어 유희가 담긴 어휘답이나 전통 문학 텍스트(시조, 설화) 등의 글 단위의 언어문화도 있다.
  - 2)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 따르면, 초·중·고 공통 과목인 ‘국어’의 성격에 대해서 ‘국어를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태도를 기르고,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국어 사용을 바탕으로 하여 국어 발전과 국어문화 창달에 이바지하려는 뜻을 세우며, 가치 있는 국어 활동을 통해 바람직한 인성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과목(교육부, 2015: 3)’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목표에 대해서는 ‘국어로 이루어지는 이해·표현 활동 및 문법과 문학의 본질을 이해하고,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맥락의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품위 있고 개성 있는 국어를 사용하며, 국어문화를 향유하면서 국어의 발전과 국어문화 창조에 이바지하는 능력과 태도(교육부, 2015: 4)를 기르는 것.’이라고 하였다. 세부적으로 들어가 중학교 1-3학년 국어의 목표와 고등학교 1학년 국어의 목표에서도 역시 ‘공동체의 국어문화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개선하는 태도를 기른다(교육부, 2015: 41).’, ‘바람직한 국어문화 형성에 이바지한다(교육부, 2015: 57).’와 같이 ‘국어(언어)문화’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다.

시켜 나갈 수 있을까 고민하도록 교육하는 작업이라는 것이다.

최근 들어 설화, 시조 등을 활용하여 언어문화 교육을 하고자 한 연구들(구민지 외, 2018; 박광옥 외, 2017)이 나와, 고전 텍스트를 통해 우리 민족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언어문화 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바탕을 마련하였지만, 사실상 이러한 언어문화 자료들은 이미 국어 교육에서 ‘문학’ 영역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들이라, 특별한 논의라고는 할 수 없다. 또한 한국만의 특수한 언어문화 자료들은 예로부터 고유어 위주의 어휘 단위가 많기 때문에 ‘문법’ 영역에서 이미 다루어 왔다.

따라서 우리의 전통적 언어문화이면서 국어 교육 측면에서 그간 크게 주목하지 않았던 부분을 제안해 볼 필요가 있다. 상징적 의미를 지닌 한자, 한자어, 한문으로 이루어진 언어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데, 문장 속 고사나 시구 등이 상징성을 띠는 언어문화의 예시로 적절하다고 할 수 있으나, 이들은 문학의 이해와 감상에서 교육하기에 제외한다. 한자, 한자어, 한문으로 이루어진 상징성을 지닌 전통의 언어문화이면서, 문학이 아닌 지금의 국어의 기능 교육으로써 일상에서 재미있게 배우고 활용할 수 있는, 그간 한국의 언어문화 교육의 요소로 크게 주목하지 않았던 대표적 언어문화로는 ‘파자’와 ‘참설’<sup>3)</sup>이 있다.

파자와 참설의 경우 언어문화 교육의 측면에서는 연구된 바 없지만,<sup>4)</sup> 한문학에서 각 자료의 의미와 양상을 해석하는 것(김승우, 2013; 김승우, 2018; 남기탁, 2008; 심경호, 2006; 오상태, 1996; 이영태, 2011; 이화영, 2010; 전병용, 2006; 정동경, 2014; 조태성, 2017)으로는 많이 연구되어 왔다.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철학·문학·역사적 상황을 모두 고려하여 그 의미를 깊이 탐구할 수 있고, 대체로 한자(어)·한문학이나 동양 철학 분야라는 편협한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욱 국어 교육에서의 언어문화 교육으로 끌어들

3) 홍순래(2005)는 ‘참설(讖說)’을 ‘다자파자(多字破字)’에 속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 의견에 따라 파자와 참설을 같은 맥락으로 여겨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4) 언어문화 교육으로는 선행연구를 찾기 어려우나, 한문 교육에서는 한자 학습의 효과 증진을 위해 파자를 활용하는 방안을 내세운 연구(양희용, 2006)가 있었다.

여 연구하기 쉽지 않았으리라 예상한다. 김병연의 언어유희(파자)를 활용한 한시가 한문·국어 교과서에 실린 바 있으며, 조선 초 악장이나 조선 건국의 역사를 설명할 때의 이성계 관련 참설 역시 학습자들이 옛 이야기의 형태로 익히 들어 온 것들이지만, 모두 국어 교육에서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언어문화 요소로 그것을 인식하고 교육했다기보다는 부수적인 자료로서의 기능이 었다는 점, 국어 교육의 영역으로 언어문화 자체에 초점을 두고 학습하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던 점이 한계라고 할 수 있다.

파자와 참설은 첫째, 역사 기록이나 문인들의 문집에 실린 것들로, 단순한 말놀이나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선조들의 삶이었고, 언어였고, 문화였음을 느끼면서 우리나라만의 언어문화라는 인식을 확실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연구 대상으로 의의가 있다. 둘째, 우리나라의 문화가 한자(어)·한문 문화를 기반으로 형성되고 발전되어 온 것을 생각해 볼 때, 기존 한글 위주의 언어문화의 범위를 한자(어)·한문 관련 이야기까지 넓혀 고려해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의의를 지닌다. 셋째, 기존의 학습을 새로운 관점, 새로운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문학이나 역사 등으로 나뉘어 각자 따로 교육되던 한자(어)·한문 관련 교육 내용을 ‘한국의 언어문화’라는 주제로 묶어 국어 교육에서 거시적인 관점에서 안목을 가지고 교수 학습할 수 있다. 기존에 배웠던, 눈에 익은 것들을 문맥과 상징성의 측면에서 언어문화로 심도 있게 새로운 방식으로 배우게 되기 때문에 국어 교육의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이처럼 파자와 참설이 언어문화 교육 측면에서 유의미함을 전제로 하여 본고의 2장에서는 파자, 참설의 언어문화 교육적 의미를 자료와 함께 살펴보고, 3장에서 이러한 자료들을 활용하여 언어문화 교육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활용 방안을 탐색해 보기로 한다.

## 2. 파자·참설의 언어문화 교육적 의미

### 2.1. 우리 고유의 언어문화에 대한 인지적 능력 향상

파자(破字)는 한자의 자획을 나누고 합하면서 맞추는 문자 유희로, 겉으로 확연히 드러나는 뜻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을 은밀하게 암시하는 기능을 하며, 자신이 의도한 바를 궁극적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특수한 목적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한자(어)의 모양(외형)을 가지고 풀어낸 이야기로, 그 시대 혹은 그것을 함께 공유하는 구성원들 사이에서 관심을 가지고 재미를 느끼면서 관련 이야기를 나눈 소통이기 때문에 당대의 언어문화이다.

파자와 관련된 이야기는 사관이 엄정한 기준으로 객관적인 입장에서 서술했다고 하는 『조선왕조실록』에도 보인다. 이것은 파자 이야기가 실제로 우리 생활에 익숙하게, 심지어 임금과의 공적인 자리에서도 존재했다는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왕과 관련한 이야기에 등장할 만큼 이것이 당대에 놀이로만 생각되었던 것이 아니라란 점, 적어도 이야기에 등장하거나 이야기를 수용하는 자들이 이해할 만한 하나의 언어문화였다는 점을 의미한다. 다음의 <표 1>은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는 한자 파자 이야기의 예이다.

<표 1>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는 한자 파자 이야기의 예<sup>5)</sup>

구분	기사 내용
㉠	<p>의혜를 형문(刑問)하였는데, 그 공초는 다음과 같다. 그가 박훈에게 부친 시의 뜻은 이러합니다. 넷째 구의 '목인이 귀를 기울여 업산이 무너진다(木人傾耳業山崩)'에서 목인(木人)은 나라의 성(李氏)을 파자한 것이니, 주상께서 남의 말에 귀를 기울여 박훈에게 죄를 준 것은 마치 산이 무너져도 벗어날 줄 모르는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뜻으로 지은 시이기 때문에 의혜에게 형을 내려야 합니다.</p> <p>-중종실록 39권, 중종 15년 6월 6일 임술 5번째 기사</p>
㉡	<p>홍충도 관찰사 심풍지가 비밀리에 아뢰기를 "신이 영장 심녕, 판관 홍경후와 함께 앉아 죄인을 신문하고 공초를 받았는데, 그 죄인은 조명호입니다. 조명호가 말하기를 '을사년 3월에 난리가 반드시 일어나는</p>

	<p>데, 그 사람은 바로 을룡(乙龍)이라 부르는 사람이다'라고 하였습니다. '龍'을 파자(破字)하면, '巳+三+月'이기 때문에 결국 을룡(乙龍)은 '乙+巳+三+月' 즉, 을사년 3월에 난리가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이런 말을 듣고서도 즉시 나라에 고발하지 않았으니 처형해야 합니다.”</p> <p>-정조실록 19권, 정조 9년 3월 24일 계유 1번째 기사</p>
㉠	<p>역적 김성철이 형벌을 받아 죽었다. 평소 김제겸이 김성철에 대해 저에게 말하기를 “그는 일을 맡길 만한데, 삼목(三木)과 친하기 때문에 그것이 결점이다.”라고 하였으니, 삼목(三木)이란, 이삼(李森)의 이름을 파자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의 편지 가운데에 ‘삼목(三木)을 충청 병사로 삼아 보낸다’는 말이 있는데, 서로 모의하지 않고서 파자한 은어(隱語)를 이처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p> <p>-경종실록 9권, 경종 2년 8월 26일 기묘 1번째 기사</p>
㉡	<p>(임금) 좌의정 김재로에게 말하기를 “지난번에 자네가 나를 헐뜯는 자가 있다고 하였는데, 김성행인 것이냐? 내가 들으니, ‘김성행이 내심(乃心)을 탐지하였다는 말이 있다. 이는 내 군호(君號)인 연잉군(延禔君)에서 임(禔)을 파자한 것이다. 이를 ‘임금의 마음을 들추어 본다’라고 해석하더라도, 어찌 나의 호를 파자하여 쓸 수 있는가? 이것이 어찌 그르지 않겠는가?”</p> <p>-영조실록 51권, 영조 16년 1월 11일 계축 1번째 기사</p>

<표 1>의 ㉠은 ‘李’를, ㉡은 ‘乙龍’을, ㉢은 李森의 이름인 ‘森’을, ㉣은 延禔君에서 ‘禔’을 파자한 이야기들로, 한자의 획을 쪼개고 나누어서 풀이를 했을 때 상황과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조선왕조실록』에 실려 있는 기록물들인 만큼 모두 정치와 관련된 상황에서 어떤 음모와 관련이 있거나 은밀하게 비판하고자 할 때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기록 속에 남아 있다는 것은 이것을 공유하는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은 파자를 적용하는 한자(어)에 대한 이해, 상황에 대한 인식, 파자의 원리 등에 대한 문식성을 가지고 생각을 공유하며 생활에 적용·이해했다는 것이다. 또한 당대의 생산과 수용을 담당하던 사람들과 이후의 수용자들까지도 고려하며 이것이 우리의 문화 안에서 일반적이고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언어 기호 및 생각의 총체라고 생각했다고 볼 수 있다. 그 시대만의, 그 구성원들

5) 이후 표에 제시한 파자·참설 이야기는 해당 원문 해석 텍스트에서 발췌, 요약하여 연구자가 재기술한 것이다.

의 독특하고 흥미로운 언어문화 양상이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파자와 관련한 이야기가 우리 전통의 특수한 언어문화 교육으로 가치가 있는 이유는 ‘학습자의 인지적 능력 향상’과 관련하여 다음의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파자를 통해 ‘언어 자체에 대한 관찰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 파자는 직관적으로 주어지는 구체적인 글자의 모습과 글자와 관련된 제반 사항, 현상에 대해 주의하여 자세히 살피지 않는다면 그 뜻을 알아채기 어렵다. 어떤 모습으로 글자가 존재하고 있으며 어떻게 하여 생겨났는지 등 있는 그대로의 사실과 현상을 적극적인 의도를 가지고 주의 깊게 확인하는 능력을 키우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표 2> 한자 파자의 종류와 예<sup>6)</sup>

구분	파자의 종류	예시
㉠	형상화	- 田: 창문의 모양
㉡	분합	- 十: 밭의 독이 무너진 것 - 朝: 十月十日
㉢	음의 유사성	- 且: 거둬 폭행하는 글자 (또 차) - 이도령인지 삼도령인지 하는 놈은: 李와 二
㉣	의미	- 紫: 이 실은 무슨 빛인가? 자줏빛

<표 2>에서 정리한 파자의 예를 보면, 어떠한 종류라 하더라도 파자 풀이를 할 때에는 모두 한자라는 언어 자체를 전체로 직관하거나 한 획씩 뜯어 관찰하고 의미를 구체화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 과정에서 한자의 음이나 뜻에 대한 지식까지도 함께 학습할 수 있지만, 꼭 한자의 음훈으로 정답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관찰하는 학습자에 따라 자의적 해석을 통해 다양한 답이 나올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교육의 효과를 가져 온다. 즉, 학습자의 감각적이고 세밀한 관찰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언어를 통한 다양한 경험 학습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6) 한자 파자의 종류와 예시는 홍순래(2011: 30-56)를 참고하였다.

둘째, 파자는 지금의 언어생활에도 적용시킬 수 있기 때문에 파자의 원리는 ‘학습자의 창의적인 능력’을 기를 수 있게 한다. 이것은 파자를 과거에 머물고 있는 언어문화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까지 끊임없이 계승, 발전시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전통적인 언어문화로 여긴다는 것에서 큰 의미가 있다. 즉, 여기에서 창의적인 능력이란, 전통의 언어문화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현대에 맞게 재해석하여 앞으로의 미래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파자의 경우는 한문을 사용하던 시대뿐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도 활용되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며,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 역시 전통 시대에 파자를 통해 만들어진 뜻을 그대로 받아 사용하는 모습도 있다. 그 예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 3> 현재 일상에서 활용하고 있는 한자 파자의 예

구분	파자 활용	예시
㉠	나이	16세 = 파년(瓜年): 八 + 八 = 16 81세 = 반수(半壽): 半 = 八 + 十 + 一 = 81 88세 = 미수(米壽): 米 = 八 + 十 + 八 = 88 99세 = 백수(白壽): 일백 百에서 一을 빼면 99
㉡	항렬자	항렬자의 각 한자를 파자하면, 십이지(지지)에 해당하는 12글자가 나온다. 12대의 항렬자를 순환시켜 이름을 정한다. ‘한양 조씨 32세손 ~ 43세손’의 항렬자는 ‘학(學)-병(秉)-연(演)-경(卿)-진(賑)-범(範)-년(年)-래(來)-중(重)-유(楮)-성(成)-원(遠)’인데, 이들 한자에는 ‘자(子)-축(丑)-인(寅)-묘(卯)-진(辰)-사(巳)-오(午)-미(未)-신(申)-유(酉)-술(戌)-해(亥)’가 각각 들어 있다.
㉢	작명	경기도의 가천대학교는 예전 경원대학교 시절 총장의 호인 가천(嘉泉)을 ‘길(길할 길)이 스무번(卅 스물 입) 더해진다(加 더할 가)’는 의미로 파자하여, ‘가천’으로 이름을 바꾸었다고 한다.

먼저, 파자로 만든 일상생활어 중에 나이 관련 어휘는 지금까지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㉞의 ‘瓜, 半, 米, 白’의 한자 획을 모양에 따라 쪼개고 나누어 숫자를 만든 것을 볼 수 있다. 한자의 음훈만 가지고 풀이를 하려면 성립될 수 없는 지점을 파자의 원리로 푸니 잘 들어맞으며, 전통시대에 만든 이러한 일상어가 민멸되지 않고 현재에도 쓰인다는 것은 파자로 만들어진 언어가 꾸준히 지금까지 하나의 문화로써 전달되어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㉞와 같이 파자로 만든 향렬자 역시 지금까지도 사용하고 있는 모습인데, <보기 3>에서 제시한 십이지(十二支, 地支)뿐 아니라, 오행(五行)과 십간(十干, 天干)을 향렬자에 넣어 순환시키는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로 파자로 설명할 수 있다. 또한 사람의 이름뿐 아니라 새로운 명칭을 만들 때 역시 그 의미를 파자로 부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예시는 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대학 이름의 작명에도 사용되었다.

한편, 파자에 한자 파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즉, 한자를 잘 아는 식자층에 한하여 그들이 공유하고 있는 문식성만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계층을 넘어 ‘기호’의 측면에서 생각했다는 점이 핵심이다. 한글의 자음과 모음, 혹은 타 언어, 특수 기호를 활용하여 모양을 가지고 의미를 만들거나 글자를 만드는 지금의 문화 역시 파자의 언어문화적 측면이 현재까지 이어진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파자라는 원리를 가지고 학습자 입장에서 적용과 창의적인 표현을 가능하게 한다. 이것의 예는 <표 4>와 같다.

<표 4> 일상에서 활용하고 있는 한글, 타 언어, 특수 기호 파자의 예

구분	한글 파자	예시	
㉞	자음과 모음을 갈라서 표현	- (전략) 먼저 저 산에서 ㄴ을 빼고/ ㅏㅏㅏㅏㅏ / 목놓아 바깥으로 아를 풀어놓으면/ 산은 마침내 ㅏ만 남게 된다/ 두 사람 비스듬 몸 맞대고 걸어가는 모습이 보인다/ ㅏ.....ㅏ.....ㅏ.....ㅏ...../ (후략) -김승희, <저 산을 옮겨야겠다>	
㉞	다른 기호를 활용한 표현	음	- 도서관이 Book적이다.
㉞		모양	- ㅎㄴㅅㄹㄹㄹㄹㄹㄹ (해바라기) - :) (웃는 모양)

<표 4>와 같이 현재는 한글과 타 언어(특히 영어), 그리고 특수 기호들을 활용한 파자 문화가 언어생활에서 활용되고 있다. 물론 조선시대에도 한글 파자가 있었다. 특히 김병연의 파자를 활용한 유희시가 대표적<sup>7)</sup>이라 할 수 있는데, 지금 시대에는 한자와 한글을 넘어서 영어와 같은 타국 언어, 특수 기호 등을 활용하기까지 이르렀다. 적용과 창의의 수준에서 학습자가 다양한 문자들을 무한대로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즉, 현대사회에 활용되고 있는 파자를 살펴보면, 전통적인 언어문화의 원리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지만, 그 원리를 지금의 시대에 맞게 다양한 방면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실 전통적 파자의 의미와 원리를 몰라도 현대의 파자를 이해하고 생성하는 데 큰 문제는 없지만, 전통과 현대의 파자를 모두 알고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 전통적인 언어문화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가치 있는 문화임을 입증함과 동시에, 이를 기반으로 우리 문화의 근간을 알아, 현대와 미래 사회에 바람직한 파자 언어문화를 더욱 바람직하게 형성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 2.2. 언어문화 생활에서의 정의적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

파자 중에 다자파자(多字破字)(홍순래, 1995)<sup>8)</sup>에 해당하는 것으로 참설(참요 포함)이 있다. 참설이란,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암시적인 이야기로, 은밀하고 신비로운 주술적인 조짐 등을 말한다. 나라가 흥하거나 망하는 시기에, 혁명이나 반란, 변혁 등이 일어나는 시기에 주로 많이 퍼지며,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기보다는 목적과 의도에 의해 조작된 것으로 본다. 참요 역시 변혁기에 많이 불린 노래라 할 수 있는데, 시대나 상황 등의 이유로 비밀스

7) 腰下佩ㄱ/ 牛鼻穿ㅇ/ 歸家修ㄷ/ 不然点ㄷ, ㄱ은 낫을 의미, ㅇ은 소의 코뚜레, ㄷ은 ㄱ(몸 기), ㄷ은 ㅁ(망할 땅)을 의미한 것으로, 글자 모양(형상화) 파자를 활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8) 다자파자(多字破字)는 한자들이 모여 문장을 이룬 것이며, 그 문장과 관련한 배경 이야기가 함께 기록되어 어떤 사실이나 감정을 은밀하게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럽게, 목적에 의해 인위적으로 퍼진 것이라 할 수 있다.<sup>9)</sup> 이러한 참설은 특히 역사 기록 속에 기술되어 실제로 정치적·사회적인 사건들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조선왕조실록』이나 『삼국사기』, 『삼국유사』 등에 우리 민족의 일반적인 이야기로 자리해 있다. 다음의 <표 5>는 여러 역사서 속에 수록되어 있는 참설(참요)의 예이다.

<표 5> 다양한 기록 속 참설(참요)의 예<sup>10)</sup>

구분	내용	
참설	①	백제 의자왕 때에는 여러가지 불길한 징조가 많이 있었는데, 한 귀신이 궁중에 들어와 “백제는 망한다, 백제는 망한다.”하고는 땅 속으로 들어갔다. 왕이 괴이하게 여겨 사람을 시켜 그 땅을 파니, 거북의 등껍질에 다음의 글이 있었다. <b>百濟圓月輪 新羅如新月(백제원월륜 신라여신월) 백제는 둥근 보름달이요 신라는 새로 생겨나는 달(초승달)과 같다.</b> 점쟁이가 이를 ‘둥근 달이란 가득찬 것이니, 가득차면 기우는 것이요, 초승달은 가득 차지 않은 것이니 앞으로 점차 차게 되는 것입니다.’라고 풀이했더니, 왕이 노해서 그를 죽였다. -삼국유사 제29대 태종 춘추공
	②	<b>鷄林黃葉 鶴嶺青松(계림황엽 곡령청송)계림은 서라벌(신라)을 뜻하고, 곡령은 송악(개성)을 의미한다. 서라벌은 낙엽이 들었고, 송악은 푸른 소나무가 깃들었다</b> 는 뜻이니, 신라는 기울고 새 시대의 근거지로 개성(고려의 수도)이 될 것을 우의적으로 예언하고 있다. 신라 말에 최치원이 왕건에게 고려의 흥함을 암시한 참설이라고 한다. -삼국사기 최치원전
	③	태조가 일어나기 전에 여러가지 개국의 조짐이 나타났다. 어떤 사람이 지리산 바위 속에서 얻었다며 이상한 글을 바쳤다.“ <b>木子乘漕下 復正三韓境(목자승저하 부정삼한경)</b> ” 목자(木子)가 돼지를 타고 내려와서 다시 삼한(조선)의 영토를 바로잡을 것이라는 뜻이다. 또한 고려의 서운관에 간직한 비밀 기록에 “ <b>建木得子(건목득자)</b> ”라는

9) 참요는 그것에 의미를 부여한 위정자들의 노래라고 할 수도 있고, 민의의 자연스러운 발현이기보다는 민의가 재해석되거나 과장 또는 훼손된 결과물일 수도 있으며, 사건이 발생된 이후의 시점에서 그 사건을 추인하는 성격의 노래로 생각할 수도 있다(김승우, 2013).

10) 밑줄 친 부분이 각 참설과 참요의 구절이며, 참설과 참요의 유래 및 관련 이야기 가 함께 기록되어 있다.

		글이 있었고, 또 “왕씨가 멀하고 이씨가 일어난다.”는 말이 있었는데, 고려말까지 숨겨지고 발포되지 않더니, 조선에 이르러 세상에 나타나게 되었다. -태조실록 1권, 태조 1년 7월 17일 병신 2번째 기사
참요	④	백제 무왕의 어릴 때 이름은 서동으로, 재기와 도량이 컸다. 평상시에 ‘마’를 캐서 파는 것을 생업으로 삼았다. 신라 진평왕의 셋째 딸인 선화공주가 아름답고 고운데, 짝할 사람이 없다는 말을 듣고 머리를 깎고 (신라의) 서울로 가서 마을 여러 아이들에게 ‘마’를 먹이며 노래를 지어 부르게 했다. 그 노래는 이러하다. ‘ <u>善化公主主懸</u> <u>선화공주님은</u> <u>他密只嫁良置古</u> <u>남 몰래 사귀어</u> <u>薯童房乙</u> <u>맛동[薯童]</u> <u>도련님을</u> <u>夜矣卯乙抱遣去如</u> <u>밤에 몰래 안고 간다.</u> ’ 이것이 서동(薯童:백제 무왕의 어릴 때이름)요(謠)이다. -삼국유사 무왕
참요	⑤	견훤에게는 많은 처첩이 있어 10여 명의 자식이 있었는데, 4번째 아들인 금강을 후계자로 삼으려 했다. 이에 반감을 품은 첫째 아들 신검이 아우인 양검, 용검 등과 힘을 합쳐 아버지 견훤을 금산사에 감금하고, 후계자로 지목되었던 금강을 죽인 후 스스로 왕위에 올랐다. 사람들 사이에서 동요가 퍼졌는데 “ <u>可憐完山兒</u> <u>失父涕漣漣</u> <u>(가련완산아 실부체련유: 가련하다 완산 아이 부친 잃고 눈물을 줄줄 흘리네)</u> ”. 이듬해 2월 견훤의 사위 박영규 장군이 왕건과 힘을 합쳐 후백제를 합병하여 고려를 세웠다. 이것이 완산요이다. -삼국유사 후백제 견훤

①, ②, ③은 각각 삼국에서 통일신라로 넘어가던 시기, 통일신라에서 고려로 넘어가던 시기,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가던 시기의 참설의 예이고, ④, ⑤는 각각 서동요, 완산요의 예이다. ①, ②, ③은 시국의 변동과 관련하여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인위적으로 퍼트렸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야기인데, 특히 ③에서 ‘고려 말까지 숨겨지고 발포되지 않더니, 조선에 이르러 세상에 나타나게 되었다.’는 부분으로 보아, 이러한 참설은 새 나라가 시작된 이후 정당성을 내세우기 위하여, 이미 예견되었던 상황임을 강조하기 위하여 사후 조작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참요에서 ④의 경우는 ‘마를 먹이며 노래를 지어 부르게 했다’는 구절로 보아 서동이 목적을 위해 조작적으로 퍼트린 것이 분명해 보이며, ⑤의 경우는 민중들이 정치 풍자를 위해 실제 자발적으로 부른 풍자 민요이거나 예언적 민요, 그리고 그러한 형태를 빗대어 정치적 집단이 제작해 낸 민요(심경호, 2006)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참설(참요 포함)<sup>11)</sup>과 관련한 이야기가 우리 전통의 특수한 언어문

화 교육으로 가치가 있는 이유는 ‘학습자의 정의적 능력 향상’과 관련하여 다음의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참설을 통해 선조들은 지금 현재의 삶을 개척하기도, 인정하기도, 때론 위로를 받거나 긍정의 상황을 만들려고 했다. 따라서 참설은 말의 힘과 관련하여 ‘삶에 긍정적인 효과와 자기 이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게 한다. 물론 의도된 목적이 있었지만, 참설과 같은 예언적인 말을 통해서 그것이 진정 예언이었던, 조작된 것이었던, 사후에 만들어진 말이든, 현재의 상황에서 더 잘 살아보고자 했던 것이다. 말에는 힘이 있어서 말 한마디에 천 냥 빚을 갚을 수도 있고, 말이 씨가 되어서 삶이 좋게도, 나쁘게도 흐를 수 있는데, 참설과 참요는 말이 특별한 힘을 지녔음을 흥미롭게 풀어낼 수 있는 전통적인 언어문화라고 할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도 ‘말의 힘’과 관련하여 삶에 긍정의 효과를 끌어낼 수 있다는 연구와 관심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러한 것들이 전통에서 현대까지 이어 오는 언어문화적 특징임을 분명히 알고, 역사적 특성으로의 참설에서 더 나아가 국어 교육에서 속담, 수수께끼, 관용어 등과 더불어 우리의 전통적 언어문화로 교육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둘째, 동양의 전통 철학에서는 말에 대한 신중함을 강조해 왔는데, 참설을 통해서 학습자들은 ‘말에 대한 경계와 신중한 처신 등의 문제해결능력’을 배우고 향상시킬 수 있다.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참설이 말의 힘과 관련하여 긍정적인 특징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조작해서 유포가 된 것이라 생각한다면, 함부로 선동하는 말, 비밀리에 건네진 말, 한쪽의 이해만 반영한 말 등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하고 상황을 살피며 처신해야 함을 보여주기도 한다. 다시 말하면, 참설이 구성원들의 생각과 기대와 바람 등을 기술한 예언의 글이지만, 학습자들에게 참(讖)이 참(讒)인지 늘 조심해야 한다는 경계의 뜻도 함께

- 
- 11) 하나의 텍스트를 두고 서로 다른 과목에서 서로 다른 관점으로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다. 참설 혹은 참요의 경우 당대의 정치적 길항 관계와 같이 깊이 내재되어 있는 자세한 문맥 전달로도 충분히 국어교육에서 논의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그보다 ‘언어 그 자체의 기능’에 주목하여 정의적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참설과 참요를 논의하도록 한다.

살필 수 있도록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킨다는 것이다.

셋째, 참설은 언어문화의 상징성 교육을 할 수 있어서 ‘학습자의 사고력 향상과 집중력 및 끈기’ 등에 도움이 된다. 언어문화가 특정 집단이 구성하고 공유하는 언어와 관련된 지식과 문화를 뜻한다면, 이러한 참설 안에 담겨 있는 내용과 문맥 파악을 통해 학습자들은 당대 사회 구성원들이 생활에서 중요하게 여기며 공유하던 것들이 무엇이었는지, 생활에서 자신의 의견을 어떻게 지혜롭게 전달하였는지 등을 알 수 있다. 참설이 포함된 다자파자의 경우 학습자의 사고력 향상, 집중력 및 끈기 교육에 모두 일조할 수 있는데, 그 예를 들면 다음의 <표 6>과 같다.

<표 6> 다자파자(多字破字)의 예

구분	내용
⊖	아름다운 처녀가 물동이를 이고 지나가는 것을 본 총각이 장난으로 돌을 던져 깨니 처녀가 돌아보며, “ <u>山下二川(산하이천) 木子之家(목자지가) 立月卜三(입월복기삼) 兩人十四一心(양인십사일심)</u> ”이라 말하고 갔다. 총각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어 월님에게 찾아가 여쭙어 보니, “산 아래 두 개울 건너 이용덕(李龍德)의 집에 살고 있다는 뜻이네.”라고 알려주었다.
⊖	어떤 사람이 장가 든 날, 신방에 들어 신부에게 나이를 물으니, 신부가 말하길 “ <u>南山有田邊土落(남산유전변토락) 古木有鳩鳥先飛(고목유구조선비)</u> ”라 하였다. 신랑이 재치가 있어 19세라 맞혔다: 남산에 밭이 있는데, 밭 가장자리의 흙이 떨어져 나갔고(田에서 口를 빼면 十), 고목에 비둘기가 있는데, 새가 먼저 날아가 버렸네(鳩에서 鳥를 빼면 九). 이에 신부가 신랑에게 나이를 물으니, “ <u>西蜀霸王渡江時(서촉패왕도강시)</u> ”라 하였다. 항우가 최초 군사 8천명을 이끌고 강을 건널 때의 나이가 24세였을 때로, 곧 신랑의 나이는 24세를 말한 것이다.

참설을 포함한 다자파자의 경우 문맥상의 내용 유추가 관건이다. 지금과는 다른 언어문화이기에, 학습자는 이야기를 통해서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는지, 진후 상황은 무슨 내용인지,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사실과 논리의 타당성과 그렇게 된 이유, 결과에 대해서 이치에 맞게 생각하고 추리, 비판, 해결하는 힘을 키울 수 있게 된다. 풀릴 듯 신비스러운 이야기라 학습

자들은 텍스트에 대한 집중력과 끝까지 풀어내고자 하는 끈기를 가질 수도 있다. ⊖과 ⊕의 경우는 참설처럼 미래의 조짐을 표현하는 글은 아니지만, 학습자들이 문장 속에 담긴 조짐과 목적 등의 비밀스러운 뜻을 파악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글을 뜻을 다양하게 생각해 보면서 결과를 도출해 가면서 사고력, 집중력, 끈기 등을 향상시킬 수 있다.

### 3. 파자·참설의 언어문화 교육에서의 활용 방안

#### 3.1. 전통과 현재 언어문화의 소통적 교육

파자·참설의 언어문화 교육은 과거와 현재의 소통적 교육이 되도록 구성해야 한다. 파자와 참설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통찰·사고하는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안내하면서 지금의 언어문화와 어떻게 소통을 할 수 있을지, 함께 언어문화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전통 언어문화와 현재 언어문화와의 소통적 교육은 첫째, 지금 전통의 언어문화가 그대로 남아 있는지, 그것을 계속 유지해 오고 있는지, 앞으로도 유지해 나갈 수 있는지, 변형·발전된 형태로 남아 있는 것인지 등에 대한 여부를 학습자 스스로 탐색해 볼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 전통 시대에 이루어졌던 파자, 참설이 지금 어떠한 언어문화 형태로 남아 있는지, 소통의 상황을 파악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파자의 경우 앞서 2장에서 살핀 바와 같이 현재에도 여전히 문자 파자를 하는 언어문화가 남아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전통 시대 한자와 한글을 파자하는 모습을 학습할 수도 있지만, 특히 인터넷 상에서 한글의 쓰임 상황에서 한글을 쪼개고 나누고 붙이면서 의미를 만들어 그것이 인터넷 상의 일반적인 언어문화를 형성하는 모습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모습들을 과거와 현재의 ‘소통’의 측면에서 어떻게 살필 수 있는지 교육할

수 있다.

둘째, 그것이 지금의 언어문화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현재 언어생활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부분인지, 건전하고 유익한 언어문화를 만들어서 우리의 언어문화 창달에 이바지할 수 있는 부분인지 스스로 탐색해 볼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전통의 언어문화라는 구체적인 산물이 변화된 매체 환경에서도 적용되어 드러날 수 있는 부분인지 역시 탐구해 볼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공동체 사회 속에서 언어를 매개로 하여 살아가는 우리들은 언어를 사용하면서 바람직한 언어문화를 형성해 나아가야 하는데, 그 기반의 하나로써 전통의 언어문화를 근거로 삼아 긍정적인 측면에서 계승·발전시킨다면, 더욱 바람직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의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살펴보고자 하겠다. 파자와 참설의 자료 특성상 중등교육에서도 고등학교 수준에 적용할 수 있다. ‘고등학교 1학년 국어 자료의 예’에서 ‘국어와 한글의 특성을 잘 보여 주는 담화나 글’로 기능할 수 있는데, 그간 파자와 참설이 대체로 문면의 내용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문학’의 영역에 한정하여 교육되었다면, 언어 기능의 측면에서 ‘말하기·듣기’, ‘읽기’, ‘쓰기’에서 교육하는 것을 제안해 본다.

**<표 7> 파자·참설의 언어문화 소통적 교육에 적용 가능한 국어과 교육과정 성취기준**

영역	국어과 교육과정 성취기준
말하기 듣기	[10국01-01] 개인이나 집단에 따라 듣기와 말하기의 방법이 다양함을 이해하고 듣기·말하기 활동을 한다. [10국01-06] 언어 공동체의 담화 관습을 성찰하고 바람직한 의사소통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태도를 지닌다.
읽기	[10국02-01] 읽기는 읽기를 통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소통하는 사회적 상호 작용임을 이해하고 글을 읽는다.
쓰기	[10국03-01] 쓰기는 의미를 구성하여 소통하는 사회적 상호 작용임을 이해하고 글을 쓴다.

첫째, 과자와 참설을 말하기·듣기 영역에서 활용할 수 있다. 언어생활에서 동양의 말하기가 직설적이기보다는 우회적이고 비유적인 경우가 많다는 예시로 과자와 참설을 활용해도 좋겠지만, <표 7>에 제시한 [10국01-01]과 같이 과자·참설의 종류와 그것을 함께 공유하던 집단에 따라서 내용과 표현 수단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교육할 수 있다. 또한 [10국01-06]과 같이 학습자 스스로 기존의 언어문화인 과자와 참설을 성찰하고 앞으로의 언어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태도를 지닐 수 있도록 교육할 수도 있다. 게다가 10학년 말하기·듣기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에서 학습자가 기존의 언어 공동체의 담화 관습을 성찰할 때 제시할 만한 요소로 고전이나 속담(교육부, 2015: 58)을 들어, 이것을 비판적으로 살피고 의견을 나누어 보도록 제안하고 있으므로, 과자와 참설은 말하기·듣기 교육 자료로 충분히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과자와 참설을 읽기 영역에서도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10국02-01]과 같이 과자와 참설 자료는 그 시대 구체적인 상황과 사회·문화적인 맥락 속에서 다른 구성원들과 상호 작용하며 의미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었음을 깨닫게 할 수 있다. 그 자료는 전통시대의 것을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 여전히 활용하고 있는 다양한 과자 예시들을 제공하여 학습자가 그것을 읽는 과정에서 자신의 구체적 상황이나 사회·문화 배경을 고려하여 생각을 형성하고 다른 사람과 공유하며 맥락을 이해, 참여하고 영향을 주고받는 활동을 하도록 교육할 수도 있다.

셋째, 과자와 참설을 쓰기 영역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 [10국01-06], [10국02-01], [10국03-01]의 성취기준이 모두 연결되는 지점이 있는데, 쓰기 교육에서는 과자와 참설 예시 자료를 기반으로 실제 학습자가 창의적으로 의미를 구성해 볼 수 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에 따라 과자를 만들어 보는 활동인데, 다양한 자료에서 얻은 내용을 과정에 따라 종합, 조직, 표현하면서 창작해 보는 활동이다.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주변 독자를 향해 대화를 하는 것이므로, 독자의 수준과 관심, 흥미를 고려하여 일상 속에서 쉽게 의미를 찾을 수 있되, 과자와 참설 본연의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여 쓸 수 있

도록 잘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언어 기능의 측면에서 ‘말하기·듣기’, ‘읽기’, ‘쓰기’에서 파자와 참설을 교육하는 것은 그것이 타인과 소통하며 사회적 상호 작용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언어문화라는 점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 또한 그것을 깨닫는 과정에서 학습자들은 언어문화에 대한 지적 능력 및 생활 능력 모두를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게 된다.

### 3.2. 전통 언어문화의 통합·융합적 교육

대체로 언어문화 교육은 (한)국어 교육에서 말아 오고 있고, 앞서 서론에서 본 바와 같이 언어문화 교육이라 하면 우리말의 문법적 특징이라든지 관용적으로 쓰는 ‘언어’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었는데, 앞으로의 언어문화 교육은 방향성과 범위를 한층 더 넓혀 ‘문화’에 초점을 두고 타 교과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 왔던 텍스트들을 국어 교육 안에서 통합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방향을 마련해야 한다. 즉, 함께 언어를 사용하는 구성원들의 담화 관습이나 작문 관습은 곧 문화를 형성한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러한 언어문화를 여러 교과의 관점에서 살피면서 국어 교육 안에서 다양하게 통합하여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고전을 따분한 옛 것으로만, 역사로만, 문학으로만 여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시적 관점에서의 ‘문화’에 초점을 두고, 한문, 역사, 윤리 교과 등과의 연계를 두고 전통 언어문화의 통합·융합적 교육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지금의 국어과 교육과정 고등학교 선택 과목의 ‘문학’ 과목에서 적용하는 것이 가장 적합해 보인다. 관련 교육과정을 모아 보면 다음의 <표 8>과 같다.

**<표 8> 파자·참설의 언어문화 통합·융합적 교육에 적용 가능한  
교육과정 문학 성취기준**

문학 내용체계	성취기준
<b>문학의 수용과 생산</b>	[12문학02-03] 문학과 인접 분야의 관계를 바탕으로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하며 평가한다.
<b>한국 문학의 성격과 역사</b>	[12문학03-06] 지역 문학과 한민족 문학, 전통적 문학과 현대적 문학 등 다양한 양태를 중심으로 한국 문학의 발전상을 탐구한다.

그간 파자와 참설 교육은 대체로 ‘[12문학02-02] 작품을 작가, 사회·문화적 배경, 상호 텍스트성 등 다양한 맥락에서 이해하고 감상한다.’의 성취기준과 관련하였다. 언어유희로의 파자시를 지은 김병연의 시를 예로 들면, 작가와 당대의 배경 등에 초점을 두고 그 연관성에 주목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12문학02-03]과 같이 다양한 인접 분야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을 이해하여 텍스트의 외연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입체적인 태도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인간의 언어문화라는 점에서 역사, 철학, 사회문화적 현상, 한문학 등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야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파자와 참설을 총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앞서 1절에서의 소통적 교육이 통시적 소통이었다면, 통합·융합적 교육은 공시성에 초점이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인접 분야뿐 아니라, [12문학03-06]와 같이 좀 더 입체적이고 포괄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범위를 넓혀 지역 간, 국가 간 다양한 양태도 비교하여 역동적으로 언어문화를 고찰해 볼 필요도 있다.

한편, 이 안에서 융합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데, 학습자들이 당대의 언어문화라는 단편적이고 파편한 인식을 갖지 않도록 언어 표면에 담긴 심미적이고 예술적인 형태의 아름다움도 향유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언어’라는 인식에서 탈피하여 선인들의 생각을 담고 있는 매체라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당대 언어 속에 담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생각들로 통찰해보도록 하는 교육을 해야 한다.

## 4. 결론

선인들의 생각을 담은 고전을 언어문화로써 탐구해 보고, 앞으로의 시대에 발맞추어 어떻게 재발견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은 언어문화의 측면에서도, 국어교육에서도 중요하게 여겨야 할 부분이다. 기존에 고전을 기반으로 한 언어문화 교육이 있어 왔지만, 현재와의 큰 거리감으로, 고전만의 특징들을 전통 속에 가두기도 하고, 지금과의 소통이나 자료의 실제성 등에 큰 반향이 없는 등 현재로 끌어온다 하더라도 단편적 재발견 정도에서 그친 모습이었다. 또한 우리의 문화 속에 깊이 뿌리박혀 있는 한자·한문의 요소들을 국어교육에서 가르치는 것에 큰 부담을 느껴 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파자·참설은 우리의 역사 기록 속에 담겨 있다는 사실, 지금의 입장에서 매우 특이할 만한 요소라 할지라도 당대 공동체 속에서 너무 당연한 일상 언어생활이었다는 점 등은 언어문화 교육의 제재로써 충분히 의미를 가지고 교육할 수 있는 것이며, 현재의 생활 속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이제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그간 한국 언어문화 교육의 요소로 크게 주목하지 않았던 파자·참설을 국어 교육의 다양한 영역에서 주목하여 활용해 보고, 이러한 언어문화 요소들이 단순한 말놀이나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선조들의 삶이었고, 언어였고, 문화였음을 느끼면서 앞으로의 언어문화의 발전적인 방향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 참 고 문 헌

### 1. 자료

- 교육부(2015),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국어과 교육과정 [별책 5]」.
- 김부식 저, 박장렬 외 5인 역(2012), 『원문과 함께 읽는 삼국사기 3: 잡지, 열전』, 한국인문고전연구소.
- 일연 저, 김원중 역(2002), 『삼국유사』, 을유문화사.
- 조선왕조실록 <http://sillok.history.go.kr/>
- 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

### 2. 논문 및 저서

- 구민지·김원경(2018), 「한국 언어문화 교육 방안으로서의 설화 ‘다시쓰기」, 『한국언어문화학』 15(2),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63-91면.
- 김경섭(2014),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문화 교육에서의 고전문학 활용 방안 : 한국어 교육에 있어서 “수수께끼”의 활용 방안」, 『한국고전연구』 29, 한국고전연구학회, 137-164면.
- 김대행(2012), 「한국 언어문화교육 연구의 내용학적 지평」, 『한국언어문화학』 9(2),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3-25면
- 김승우(2013), 「참요(讖謠)의 원의(原義)에 대한 고찰」, 『Journal of Korean Culture』 24, 한국어문학국제학술포럼, 5-37면.
- 김승우(2018), 「‘推案及鞫案’ 소재 讖謠 관련 자료 연구」, 『고전과 해석』 26, 고전문학한문학연구학회, 29-68면.
- 김연희(2018), 「중도입국학생을 위한 효율적인 한국어 교육방안: 언어문화 교육과정 중심으로」, 『한말연구』 48, 한말연구학회, 31-56면.
- 김은희·이미향(2013), 「한(韓)-콘텐츠를 활용한 한국어 언어문화교육 연구」, 『한국언어문화학』 10(2),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1-30면.
- 남기탁(2008), 「한자(漢字) 수수께끼에 대한 고찰(考察)」, 『한국어학』 40, 한국어학회, 203-222면.

- 박광옥 · 이명애 · 이지양(2017), 「한국언어문화교육에서의 시조교육 효과 연구」, 『時調學論叢』 46, 한국시조학회, 61-90면.
- 성기철(2004), 「언어문화의 보편성과 개별성」, 『한국언어문화학』 1(2),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131-149면.
- 성기철(2008), 「다문화 사회에서의 언어 교육의 과제」, 『한국언어문화학』 5(2),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1-26면.
- 심경호(2006), 「한국한문문헌 속의 참요: 특히 민중적 대항 언론과 정치적 의제(擬製)에 관하여」, 『韓國漢文學研究』 38, 한국한문학회, 31-67면.
- 양희용(2006), 「한자의 학습효과 증진 방안에 관한 연구」, 『한문교육연구』 26, 한국한문교육학회, 303-327면.
- 오상태(1996), 「고려시대의 참요 연구」, 『우리말 글』 14, 우리말글학회, 345-380면.
- 오지혜(2007), 「한국어교육에서의 언어문화 교육을 위한 교육내용의 범주 및 구조 설계 방안」, 『한국언어문화학』 4(2),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83-120면.
- 윤여탁(2015), 「한국 언어문화 교육의 질적 향상 방안」, 『한국언어문화학』 12(1),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1-22면.
- 이미향(2012), 「한국어 언어문화교육에서의 사회적 상호작용 고찰」, 『한국언어문화학』 9(2),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235-263면.
- 이영태(2011), 「신라시대 참요(서)를 이해하는 한 방법: 형후의 설을 중심으로」, 『새국어교육』 87, 한국국어교육학회, 399-421면.
- 이화영(2010), 「이성계설화의 전승과 의미 연구」, 전주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병용(2006), 「조선시대 언어유희와 통신언어 언어유희의 비교 분석」, 『東洋古典研究』 24, 동양고전학회, 185-221면.
- 정동경(2014), 「‘참(站)’의 의미에 대한 통시적 고찰」, 『정신문화연구』 37(3), 한국학중앙연구원, 141-171면.
- 조태성(2017), 「참요, 감성적 근대성의 한 징후: 조선후기 공감장의 형성과

투쟁을 중심으로, 『호남문화연구』 61,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69-95면.

홍순래(1995), 『파자이야기』, 학민사.

홍순래(2011), 『한자와 파자』, 어문학사.

【Abstracts】

## The Meaning of Linguistic Culture Education in Paja(破字) and Chamseol(識說) and Utilization Plan

Cho, Seongyoon

This research is aimed at examining the educational meaning of the Linguistic culture of Paja and Chamseol, which is our own Linguistic culture, and proposing specific Korean language education measures to utilize them.

Paja and Chamseol have two main linguistic cultural educational meanings. First, we improve our cognitive ability to our own Linguistic culture. It can improve the ability of learners to be creative because it can enhance the ability to observe the language itself and apply it to current language life. Second, exert a constructive influence on emotional ability in Linguistic culture life. The power of the words of Paja and Chamseol increases the positive effect and self-understanding ability in life. Also, you can learn and improve your problem-solving skills, such as alertness to words and careful behavior. It also helps learners improve their thinking skills, focus and persistence.

Paja and Chamseol can be used in two ways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First, it enables the communicative education of traditional and present language culture. Therefore, he proposed to educate students by speaking, listening, reading and writing in terms of the language skills of high school Korean. Second, you can have integrated and converged education of traditional language culture. It proposed to integrate publicly with adjacent areas in the literature subject of high school elective

subjects and to educate them to engage in converging dynamic thinking.

**Keywords** : Paja(破字), Chamseol(讖說), Linguistic culture, Linguistic culture education, Communication, Integration, Fusion

이 논문은 2020년 01월 15일에 투고되었으며, 2020년 03월 17일에 심사 완료되어 2020년 03월 18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